

시모쓰미치(下ツ道)

(히에다(稗田)유적 · 헤이조쿄산조오지(平城京三条大路) · 하치조키타(八条北遺跡)유적)

시모쓰미치는 고대에 만들어진 야마토 3도(三道)의 하나로 『일본서기』의 임신의 난에도 등장한다. 가미쓰미치(上ツ道) · 나카쓰미치(中ツ道)와 평행하게 나라 분지를 남북으로 무려 약 24km나 쪽 뺀 대로이고 도로 폭은 22~24m나 된다. 또 시모쓰미치는 후지와라쿄(藤原京)나 헤이조쿄(平城京)를 조영할 때에 기준이 된 주요 도로인데 헤이조쿄의 경우는 중축선으로 이용되어 주작대로의 중앙에 위치한다.

헤이조쿄가 조영되면서 헤이조쿄 안을 지나는 시모쓰미치의 측구는 메워져 버리지만, 헤이조쿄의 남쪽에서는 주요 도로로써 이용되며 야마토코오리야마시(大和郡山市) 히에다 · 와카쓰키(若槻)유적에서는 시모쓰미치를 횡단하는 인공하천에 폭 18m×길이 19m의 교각 흔적이 발견되었다. 이후에 폭 12m의 다리로 다시 놓였는데 나라 시대에 걸쳐 주간 도로였던 것을 엿볼 수 있다. 이 다리 주변이나 하천에서는 목서인면토기를 비롯한 제사유물이 다수 발견되었다.

또 시모쓰미치 동측구는 폭이 11m, 깊이가 2m나 돼서 운하라고 할 만한 규모의 구간이 있다. 야마토코오리야마 하치조키타유적에서는 남북 약 100m에 걸쳐 시모쓰미치를 조사했는데 히에다 · 와카쓰키유적과 같이 운하와 같은 동측구가 확인되었다.

이 시모쓰미치가 언제 부설되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헤이조쿄산조오지와 주작대로의 교차점에 대한 조사에서는 6세기 말~7세기 초두 경의 스에키 배개(杯蓋)가 시모쓰미치 동측구 바닥에 달라붙은 상태로 출토되어 부설연대를 나타내는 자료로 주목을 받았다.